

강원경제인한마음대회

◇오인철강원경제단체연합



회장은 11일 오후 3시 고성 파인리조트 클럽하우스에서 2019 강원경제

인한마음대회를 개최.

도 건축허가면적 1년새 43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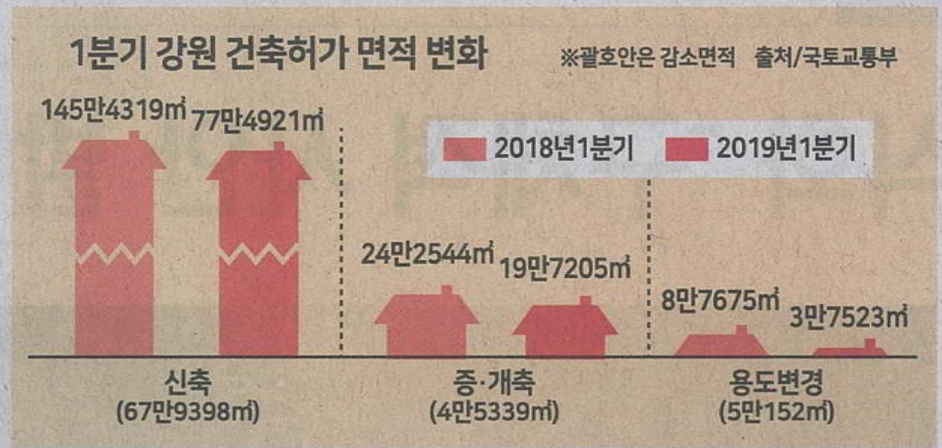
올해 1~3월 100만9649㎡

전년동기비 77만4889㎡ 줄어

신축·증개축·용도변경 '곤두박질'

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분기 강원지역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 대비 43%(77만㎡)가 줄어 관련업계까지 도미노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. 주택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신축과 증축, 용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가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.

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건축허가면적은 100만9649㎡(30만5954평)로, 전년동기 178만4538㎡(54만769평)보다 77



만4889㎡(23만4814평) 줄어 43.3%의 감소율을 기록했다. 같은기간 건축허가건수가 3927건에서 3114건으로 813건(20.7%) 감소한 결과다.

주택, 복리시설, 상가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한 신축 건축허가 면적과 건수가 모두 줄었다. 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면적은 지난 1분기 77만4921㎡(23만4824평)로 전년동분기 145만4319㎡(44만702평)보다 67만9398㎡(20만5878평) 줄면서 46.7%의 감소율을 나타냈다. 신축 건축허가건수도 이기간 2237건에서 1989건으로 348건(14.8%) 감소했다.

증·개축허가건수는 올 1분기 882건으로 전년동분기(1284건)보다 402건(31.3%) 감소했다. 허가면적도 24만2544㎡(7만3498평)에서 19만7205㎡(5만7959평)로 4만5339㎡(1만3739평) 줄었다. 지난 1년간 건축허가면적 감소율이 18.6%에 달했다.

용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건수도 지난 1분기 243건으로 전년동분기(306건)보다 63건(20.5%) 줄었으며, 이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8만7675㎡(2만6568평)에서 3만7523㎡(1만1370평)로 5만152㎡(1만5197평) 줄어 57.5%의 감소율을 기록했다. 신관호

11~12일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

강원경제단체연합회(회장 오인철, 이하 강경연)는 11일부터 12일까지 고성 파인리조트에서 '2019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'를 개최한다. 이번 행사는 강경연과 강원도, 도경제진흥원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, 최문순 강원도지사와의 금석 도의장을 비롯한 도내 경제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특히 행사 첫날에는 강원수출 신시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판로개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. 재베트남 강원상공인연합회가 베트남 투자 설명회를 실시하며, 강경연과 베트남 출구전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 이 밖에 이날 박영만 마케팅홍보연구소장을 강사로 한 '팔지않고 사게하는 영업홍보 마케팅 비법' 특별강연과 환영만찬, 공연 등이 진행되며 행사 둘째날에는 친선 골프대회 및 우수기업인 시상식이 열린다. 신관호